

사랑이라는 위대한 것 (10): 우리는 사도들 이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재구성 합니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비전입니다"라고 성 호세마리 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26-1-4

(10) 우리는 사도들이다!

가파르나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시작하신 사도직 모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열두 사도 중 적어도 네 명이 그 도시에서 어부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낡은 배 곁에, 찢어진 그물 곁에 있었는데, 그것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159]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계획을 그려내는 말씀으로 그 첫 번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르 1,16-17).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부이겠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를 낚을 것입니다. 다른 바다를 알게 될 것이지만, 그들의 일을 통해 배운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풍과 풍어가 있는 날들이 올 것이지만, 볼품없는 날들도 있을 것이고, 전혀 잡히지 않는 날

들도 있을 것이며, 빈손으로 해안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적게 잡히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어느 경우든 어획량이나 사람들이 성공이나 실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단순히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 아름다운 임무, 특별한 것 -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재구성합니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비전입니다"라고 성 호세마리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서 친히 우리를 당신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각자 안에서 "실천을 통해 직업의 몸체를 갖추게 되는 활동에 자신의 가장 고귀한 에너지를 바치고자"하는 열망을 점화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소명이 우리로 하여금 -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 죽음의 순간까지도 희망에 가득 차서 열정과 기쁨으로 유지할 삶의 자세를 취하도록 이끕니다. 그것은 일에 사명감을 전달하는 현상입니다"[160].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 임무는 우리의 존재 방식, 행동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형성해 갑니다.

오카리스 몬시뇰께서는 표현력 있는 말씀으로 이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들입니다!"[161] 사도적 사명은 우리 개인 생활의 어떤 시간이나 특정 측면들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360도의 범위를 가집니다. 성 호세마리아께서는 처음부터 오푸스 데이의 사람들에게 이를 상기시키셨

습니다: "내 아들들아, 우리가 다른 영혼들과 결합하여 좋은 일을 하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은 많은 것이다...그러나 적은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적 지시를 수행하는 사도들이다".[162]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성 바오로가 썼습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사랑의 충동은 초대이자 의무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추구하는 유일한 보상은 "복음을 무상으로 전하는" 것인데, 그는 자신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주 그는 마음을 엽니다: 그는 사도들 중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가치하고 공로가 없지만, 그는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도적이지 않은

상황이 없으며,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1코린 9,16-23참조)라고 단언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분이고, 이렇게 여겨 지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의 종 바오로, 소명으로 사도가 된 자,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자"(로마 1,1).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사도직은 단순히 "맡겨진 일"이나 하루 몇 시간을 요구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님과 함께 온 교회와 함께 "한 몸 한 마음"이 된 마음에서 솟아나는 필요입니다[163]. 사도가 되는 것은 "명예로운 칭호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고, 오히려 관심 있는 주체의 전 존재를 구체적으로 또한 극적으로 책임지게 합니다." [164]

때로는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때에는 복음화하려는 노력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리의 부르심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알고 있으므로,
사도직이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도록 그분께 청합
니다(요한 4,14 참조).

세상의 소금, 빛, 누룩

제자들에게 그들이 발전시킬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자주 비유
를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
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한번은 말씀하셨습니다(마태
5,13-14). 다른 때에는 누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온
반죽을 발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요
(마태 5,33 참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하는 소금, 인도하는 빛, 반죽
을 부풀게 하는 누룩.

다른 많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오푸스데이의 신자들은 세상 한복판
에서 자연스럽고 신중하게 사도직을
발전시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 그들은 단순히 주님의

이 비유들을 자신들의 삶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너에게는 구체적인 길에 대한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다: 세상의 모든 교차로에 들어가 되, 너는 하느님 안에 잠겨 있어라. 그리고 누룩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 비추기 위해, 맛을 주기 위해, 발효시키기 위해, 증가시키기 위해." [165] 실제로 소금은 음식과 잘 섞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없이는 맛없을 수 있는 음식에 은혜를 줍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 빵에 부피를 줍니다. 빛은 차례로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해" 높은 곳에 놓이며, 항상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마태 5,15-16); 그러나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고 자신이 비추는 것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편안하며, 희망과 계획을 공유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서[166]- 사람들 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이 개방성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마음에 하느님의 발자취를 남기겠다는 평온한 의지를 가지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방법으로[167]: 때로는 그들을 위해 간단한 기도를 드리며, 다른 때에는 한 마디나 친절한 몸짓으로.

삶의 사도적 효과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열매가 그림자 속에 남아 있고, 이 생에서는 그것들을 알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놓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새로워지는 열망, 주님과 아주 결합되어 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사도로서 삶을 걸어가기: 하느님의 빛으로, 하느님의 소금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런 내적 삶으로, 주님과의 그런 일치로 우리가 비추고, 부패와 그림자를 피하게 하자." [168]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의 수고를 결실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외적 어려움들에 대해 생각하며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호수가 너무 크다고, 군중이 우리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길이 힘들다고, 이 폭풍에 맞서 노를 저을 수 없다고...

능동적 자발성으로

열두 사도들의 명단을 검토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다른지, 때로는 아주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주목됩니다. 교회에서 시성된 성인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중하지만 꾸준한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르지만, 동시에 모두 사도이고, 신자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바칠 때 우리는 자신의 풍요로움을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각자를 생각하실 때, 그분께서 선물하고 싶어하시는 것을 생각하실

때, 그분께서는 그를 자신의 개인적인 친구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선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 그것은 분명히 당신을 가장 깊은 곳에서 기쁘게 하고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 보다도 당신을 더 열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이 특별하거나 드문 은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릇에, 당신의 전 생애의 그릇에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69]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은총이 개인적 노력과 함께 자신의 성격까지도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완전성의 이상을 의지적으로 강요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의 삶에 미치시는 영향과 열정입니다.

단장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에게 자신

의 삶을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답변은 감동적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하신 일을 보는 사람의 말입니다. "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살면서 이렇게 야심차게 제 삶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다면 훨씬 더 좁은 지평을, 더 짧은 비행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제로서 야심차게 실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 호세마리아와 복자 알바로] 위대한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교적으로 위대한 두 분과 함께 살았던 덕분에 세계화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70]

그리스도에 의해 파견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삶의 키를 잡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깊이 자유로운 응답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기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빛나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재능,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창조성을 그분의 봉사에 바치는 데 있어서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호세마리아께서는 "오푸스데이 정신의 가장 명백한 특징 중 하나는 자유와 이해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1]

동시에, 이 정신적 자유는 "자신의 변덕에 따라 행동하고 어떤 규범에든 저항하는"[172]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이 해방되어야 할 강요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움직였던 바로 그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러 하늘에서 내려왔다"(요한 6,38). 만약 사도직을 하나의 활동으로 더 생각한다면, 사도적 계획들을 조정하는 사람들의 지시에 의해 억압당하는 느낌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에 의해 파견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여러 도구들을 통해 전달하시는 도움과 추진력을 즐깁니다. 정신적 자유로 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활동하시면서 우리를 형성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자유는 사도적 사명의 이러한 필요 앞에서 "능동적 자발성으로" 행동하도록 이끕니다; 능동적 자발성으로, 즉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그것이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사도로서 해당하는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일상의 작은 상황들에서 우리는 성령의 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매혹적인 역사를 그분과 함께 계속하기 위해 우리를 "깊은 곳으로" 밀어내십니다(루가 5,4 참조).

만약 우리의 사명이 "사도직을 하는 것"이라면 불가피한 일이나 병 때문에 그것을 제쳐둘 수 있을 것이고, 사도적 "휴식기"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화의 열정을 방에 남겨두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확실히 사명은 자주 노력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 저항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정한 자발성과 사도적 창조성이 자라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사명과 동일시 될수록 모든 것이 사도직의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전초기지에 있다는 의식, 보초의 의식"을 얻게 되며, 이것은[173] "사랑의 경계에, 긴장 상태에, 잠들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머물도록 이

꼽니다[174]. 사랑의 경계이며, 따라서 불안이나 신경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는 우리를 희망에 젖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주변에 행복을 전달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며 그 일이 그분의 것임을 확신합니다. 만약 언젠가 영혼에 어떤 평화의 부족, 과도한 긴장이 스며든다면, 그분께 가까이 가서 말씀드릴 순간입니다: "당신을 위해 합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께서 하신다는 확신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따뜻함을 주는 영적 빛

혼인 잔치 초대받은 이들의 비유에서, 집주인이 초대받은 이들 중 몇몇이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종에게 "가난한 이들과 불구자들과 눈먼 이들과 절름발이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루카 14,21). 연회장은 상당히 봄비게 되었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남

아 있습니다. 그때 그가 종에게 말합니다: "길거리와 울타리로 나가서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가득 채워라"(23절). "억지로라도 데려오라." 그의 열망의 강도가 바로 거기까지 이릅니다.

이 명령이 단호한 것은 구원에의 부르심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강요가 아니라, 빛의 풍요로움, 교리의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노고의 영적 자극, 그것은 교리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바칠 줄 아는 희생의 집합;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가에 떠오르는 미소: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모순이 없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을 평온한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하느님 자녀로서의 신분, 그것을 다른 이들이 보고 부러워합니다.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의 우아함과 인간적 매력을 더하면,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는' 내용을 갖게

될 것입니다." [175] 따라서 그것은 누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번 새로운 기도와 우정, 증명과 관대한 희생의 결합입니다... 나누는 기쁨, 자유롭게 초대하는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이끌어서"[176] 행동하신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쁨과 매력으로 영혼들에게 박차를 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직은 넘쳐흐르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은 끌어당길 줄 압니다. 성 호세마리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모든 이를 끌어당깁니다" [177].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를 위해 아주 큰 마음을 청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실제로 진실한 사랑만큼 끌어당기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사랑의 따뜻함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참된 우정은 실제로 "성 호세마리아께서 복음 이야기에서 발

견하신 사도직을 하는 방법"입니다 [178]. 필립보가 바르톨로메오를 끌어당겼고; 안드레아가 베드로를; 그리고 침상에서 움직일 수 없던 그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들도 좋은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느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정과 사랑은 한 가지입니다: 따뜻함을 주는 영적 빛." [179]

친구를 갖는 것은 꾸준함, 개인적 접촉을 요구합니다; 모범과 진실한 충성; 서로 도우려는 의지, 서로를 떠받치는 의지; 경청과 공감: 타인의 필요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우정은 사도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도직 자체가 그 본질에서 우정입니다: 무상성, 다른 이들과 삶을 함께 살고자 하는 열망. 물론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자신의 일

에서 좋은 결과를 추구하고, 자신의 노력과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논리적 이지만, 거의 모든 이가 떠났을 때도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는 것을(요한 6,66-69 참조)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올 것이었습니다(사도 2,37-41 참조).

한번은 한 젊은이가 성 호세마리아께 물었습니다: "신부님, 많은 이들이 따라오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180] 답변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도, 충실한 우정, 자유에 대한 존중." 젊은이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졌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것은 너무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닙니까, 신부님?" "아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초자연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성 호세마리아께서 각 음절을 늘여 대답 하셨습니다. "사울이 바오로로 되는데는 일 초면 충분했다. 그 후 사흘의 기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사도가 되었다."[181]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사도는 기도와 희생으로 친구들과 동반하며, 자신의 제안에 "아니오"라는 답을 받아도 조급해하지 않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기를 거부할 때 화내지 않습니다. 참된 친구는 장점에 기대어 성장을 돋고,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보이는 결정들에 대해 많은 경우 질책을 피합니다;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고, 언제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도"해야 하는지 알며, 성가시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각 사람의 가장 좋은 점에 대한 신뢰와 헌신에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겁게 굴지 않으면서,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던 것처럼 귀에 몇 마디를 속삭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살아 있게 유지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너와 나는 사람들

을 볼 때 영혼들을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한 영혼이 있다 -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 도와야 할 영혼; 이해해야 할 영혼; 함께 살아야 할 영혼; 구원해야 할 영혼."[182]

호세 마누엘 안투냐

[159] 성 호세마리아, "담금질", 356 번.

[160] 성 호세마리아, "서신" 1932년 1월 9일, 9번, "오푸스데이의 설립자", 제1권, 리알프, 마드리드 2010, 302-303쪽.

[161] F. 오카리스, 목자 서신, 2017년 2월 14일, 9번.

[162] 성 호세마리아, "훈령" 1934년 3월 19일, 27번, "길" 비판-역사적 판, 942번에 대한 주석에서 인용.

[163] "로마 미사 경본", 감사기도 제 3양식.

[164] 베네딕토 16세, 알현, 2008년 9월 10일.

[165] 성 호세마리아, 1955년 4월 묵상, “작품들” 1956, XI, 9쪽 (AGP, 도서관, P03).

[166]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과 홀로”, 273번 (AGP, 도서관, P10).

[167] J. 에체바리아, 강론, 2010년 9월 5일, “로마나”, 51호, 2010년 7-12월, 339쪽 참조.

[168] “담금질”, 969번.

[169]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2019년 3월 25일), 287번.

[170] P. 우르바노의 J. 에체바리아 인터뷰, “에포카”, 1994년 4월 20일, A. 산체스 레온,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리알프, 마드리드 2019, 349-350쪽에서 인용.

[171] 성 호세마리아, “서신” 1954년
5월 31일, 22번.

[172] F. 오카리스, 목자 서신, 2018년
1월 9일, 5번.

[173] 성 호세마리아, “서신” 1954년
5월 31일, 16번.

[174] 같은 곳.

[175] 성 호세마리아, “서신” 1942년
10월 24일, 9번; “하느님의 친구들”,
37번 참조.

[176] 베네딕토 16세, 강론, 2007년 5
월 13일; 프란치스코, 강론, 2018년 5
월 3일.

[178] F. 오카리스, 목자 서신, 2017년
2월 14일, 9번.

[179] “담금질”, 565번.

[180] 잘 작동한다는 의미였습니다.

[181] 성 호세마리아, 가정 모임 기록,
1967년 4월 24일, “연대기” 1967,
506쪽 (AGP, 도서관, P01).

[182] 성 호세마리아, 1963년 2월 25
일 묵상 기록, “연대기” 1964, IX, 69
쪽 (AGP, 도서관, P01).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
sarangiraneun-widaehan-geos-10-
urineun-sadodeulida/](https://opusdei.org/ko-kr/article/sarangiraneun-widaehan-geos-10-urineun-sadodeulida/) (2026-2-2)